

#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순차매개효과\* \*\*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on Self-Determination: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Autonomy Support

김지효<sup>1</sup> 신나리<sup>2</sup>

Ji-Hyo Kim<sup>1</sup> Nary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behavioral inhibition on self-determination, examining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autonomy support.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25 mothers with children aged 6 yea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SPSS Statistics 23.0 was used for basic analysis. The research model used the Process Macro 4.0 program.

**Results:** The higher the level of behavioral inhibition, the lower the child's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a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when parenting anxiety was added. However, in the single mediation model and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in which autonomy support was added, the direct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xiety on self-determination disappeared. As a result, behavioral inhibition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autonomy support.

**Conclusion/Implications:** If a mother with a child with a behaviorally inhibited temperament properly handles the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during parenting based on her understanding of the child and supports the child to have a high degree of autonomy, she can enhance the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Key words** behavioral inhibition, self-determination, parenting anxiety, autonomy support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3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졸업

### 2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binah2009@cbnu.ac.kr)

## I. 서론

유아기는 자기인식과 자기평가에 대한 능력의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이때부터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규제를 경험하는 등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Carlton & Winsler, 1998). 이러한 자기결정적 행동은 자율적 선택의 경험에 근거하여 발달하게 되며, 이후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유능감으로 기능하게 된다(박근주,

서소정, 2013).

Deci와 Ryan(2002)은 자기결정성을 인간의 생득적인 욕구인 자율성 추구에 대한 것으로 보고, 기본심리욕구에 기반을 두어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자기결정과정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전략이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상위인지적 특성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점검적인 특성은 상황과 사건에 맞춰 생각이나 의도, 행동을 의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기조절에 해당하게 된다(이정란, 양옥승, 2003). 유아기는 자기조절 및 자율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가정이나 기관에서 유아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Hendrick & Weissman, 2007). 때문에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도 유아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와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처럼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주도성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서 중요하게 강조됨에 따라서 자기결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광범위하게 탐색되어 왔다.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작용하는 기질 특성 중 행동억제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는 떨어지려고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보이는 행동특성으로, 유아기에 관찰 가능한 대표적인 기질 특성 중 하나이다(Schwartz et al., 2003). 이에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기질의 유아는 낮은 자극을 회피하거나 낮은 상황에서 높은 경계심을 보여,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특히 행동억제는 사회성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적 조절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압력, 제약에 순응하기 쉽고,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회피, 단념, 자기연민 등을 보이기 쉽다(Deci et al., 2001; Krebs et al., 1998; Penley et al., 2002). 이에 Barker(2019)는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가 도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상황에서 소극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Kochanska와 Aksan(2006)은 기질의 여러 하위차원 중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극과 환경에서 접근보다는 회피 동기의 가능성과 관계되는 행동억제가 자기조절과 관계된 영역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이 어떤 단서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는 동기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행동억제에 상반되는 행동 활성화 특성을 가진 아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기대 수준이 높고, 목표 지향 행동을 상대적으로 잘하며, 자존감과 효능감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현혁, 허진영, 2012). 따라서 다양한 기질적 특성 중 행동억제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동억제 수준에 주목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행동억제와 같은 유아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 외에 유아가 경험하는 양육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환경으로는 유아기 자녀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지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nstein et al.,

2005; Grolnick et al., 1991). 즉, 어머니가 자녀의 주도성을 지지해줄 때, 자녀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을 체계화한 Deci와 Ryan(1991)의 기본심리욕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자녀를 신뢰하며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여 자녀의 자기결정적 행동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결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특징을 보이기 쉽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소수화 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보호, 완벽한 부모 역할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양육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변수빈, 신나리, 2021; 정은영, 장성숙, 2008). 양육불안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염려, 걱정 등과 같은 불쾌한 정서적 상태로, 양육 상황에서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발된다(이정옥, 이선남, 2018). 특히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영아기에 비해 확대된 부모 역할로 인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된다(이기숙 등, 2008).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높으면, 자녀가 스스로 상황을 예측하고 경험할 기회를 저해한다(Becker et al., 2010; Ginsburg & Schlossberg, 2002, Whaley et al., 1999). 즉,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부족하여, 자녀에게도 신뢰와 존중감이 부족하여 과잉보호하거나 과도한 간섭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김경미 등, 2005; 김춘경, 2000). 또한, 어머니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지지적 반응은 감소하고 비지지적 반응이 높아져, 자녀의 위축과 우울,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다(손영미, 2016). 이같이 불안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자녀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관되게 밝혀져(김은주, 도승이, 2009; 허영호, 2007), 양육불안은 유아기 자녀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낮추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질이 어려운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양육효능감이 점차 낮아져, 결과적으로 양육과 관련한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위지희, 채규만, 2015). 특히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유아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자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조차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여 적절한 행동이나 수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Fox et al., 2005; Hofmann & DiBartolo, 2014; Shamir-Essahow et al., 2005), 양육자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Rubin 등(1997)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 자녀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따듯하지만 통제적이었고,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호에는 반응적이지 못한 경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행동억제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격려하거나 적절한 선택권을 제공해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상황이 빈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이로 인해 낮아진 자율성 지지 수준은 자녀의 행동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은 유아기부터 일상에서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지원해 주는 것은 자녀의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행동억제 특성을 보이는 유아는 낯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극과 환경에 회피 동기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높아져,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행동억제와 같은 유아의 특성 또는 양육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을 각각 살펴본다,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추정하여 영향력의 경로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개인의 내재적 동기 촉진에 관심을 두고 발전해 온바, 학교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의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박경숙, 오인수, 2016; 신이나, 손원숙, 2015; 주희진, 2011; 홍국진, 이은주, 2017), 자기결정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유아 대상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학령기 이후를 중심으로 수행된 자기결정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자율성과 주도성이 강조되는 유아기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의 발달이 일정 수준 이루어져 개인차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5세반에 재원하는 유아 중 생일이 지난 6세를 대상으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행동억제 수준과 양육특성인 어머니의 양육불안 및 자율성 지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양육불안과 행동적 특성인 자율성 지지를 통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경로를 순차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환경의 이해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유아기부터 일상 속의 경험에서 자기결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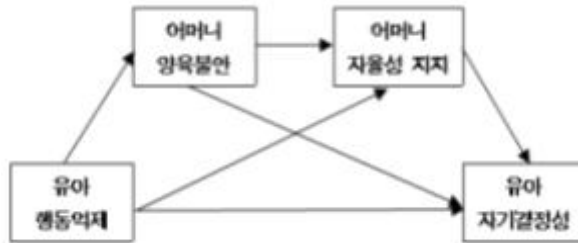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조사 전문기관 패널의 유아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당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만5세반에 재원 중인 2016년생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응답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생일이 지나 6세가 된 자녀의 어머니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62.7%로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5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 고졸,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미취업이 59.1%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연령은 30대가 48.4%, 40대는 48%로 유사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49.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 순이며, 직업은 사무직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전문직, 판매 서비스직·기타, 생산 근로직 및 단순노무직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는 전체 225명 중 여아가 51.6%, 남아는 48.4%로 여아가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는 둘째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외동, 첫째, 셋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25)

특성	빈도(%)	특성	빈도(%)
유아 성별		부 연령	
여아	116(51.6)	20대	3( 1.3)
남아	109(48.4)	30대	109(48.4)
유아 출생순위		40대	108(48.0)
외동	77(34.2)	50대	5( 2.3)
첫째	49(21.8)		
둘째	86(38.2)	부 최종학력	
셋째 이상	13( 5.8)	고졸	40(17.8)

표 1. 계속

특성	빈도(%)	특성	빈도(%)
모 연령		전문대 졸업	48(21.3)
20대	3( 1.3)	4년제 졸업	112(49.8)
30대	141(62.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25(11.1)
40대	81(36.0)		
모 최종학력		부 직업	
고등학교 졸업	34(15.1)	사무직	104(46.2)
전문대 졸업	60(26.7)	관리·전문직	45(20.0)
4년제 졸업	113(50.2)	판매서비스·기타	44(19.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18( 8.0)	생산 근로직 및 단순노무	32(14.2)
모 취업여부			
취업	92(40.9)		
미취업	133(59.1)		

## 2. 측정도구

### 1) 유아의 자기결정성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olman 등(1994)이 개발한 ‘AIR Self-determination Scale’을 류숙렬(200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자기결정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6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학생용, 부모용, 교사용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용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내 아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며,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에 해당하는 Cronbach’s  $\alpha$ 는 .93로 매우 높았다.

### 2) 유아의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은 3-5세의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ishop 등(2003)이 부모 및 교사용으로 개발한 척도인 ‘Behavioral Inhibition Questionnaire(BIQ)’를 이하람과 신나나(2020)가 번안한 행동억제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사회적 행동억제(또래, 성인, 수행상황)와 상황적 행동억제(분리/유치원, 낯선 상황, 신체적 도전)를 측정하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과 하위차원별 점수 모두 사용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내 아이는 새로운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수줍어 한다’, ‘내 아이는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인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예비조사 결과 이하람과 신나나(2020)가 사용한 척도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로 진술된 응답 범주가 진술의 위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원 척도를 검토한 후 연구자가 ‘거

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가끔 그렇다(3점)'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부 부정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유아의 행동억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4$ 로 산출되어, 문항 간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양육불안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오영진과 김영희(2021)가 만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능력불안(10문항), 관계불안(10문항), 보호불안(8문항)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점과 하위차원별 점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불안하다', '나는 아이가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미덥지가 않다', '나는 아이에 관한 일은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산출 결과 .94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Grolnick 등(1991)이 개발한 'Perceptions of Parents(POPS)', Williams와 Deci(1996)의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LCQ)', Soenens 등(2007)의 부모 자율성 질문지 등을 노보혜 등(2011)이 참조하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12문항의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89로 우수한 편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이해도와 소요 시간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만5세반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앞서 설명된 예비조사 지적 사항을 연구진이 검토한 후 일부 반영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승인번호: CBNU-202206-0107)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위험이나 이득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 안내문을 패널에게 이메일로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설문 링크에 연결된 웹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결정성 척도가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바, 2016년생 자녀의 생일이 응답일을 기준으로 지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상관 등의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였다. 사용된 Process Macro의 모델은 4번과 6번이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의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3.71( $SD = .54$ )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아의 행동억제는 3.31( $SD = .89$ )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2.82( $SD = .84$ )로 중앙값 이하로 산출된 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3.18( $SD = .39$ )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예상한 방향과 같게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는 부적 관계이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는 정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정적,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유의한 상관계수는 -.42부터 .57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 VIF 값을 살펴본 결과, 1.11~1.29 범위로 3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225)

구분	①	②	③	④
① 유아 자기결정성	1.00			
② 유아 행동억제	-.26***	1.00		
③ 어머니 양육불안	-.24***	.21**	1.00	
④ 어머니 자율성 지지	.57***	-.31***	-.42***	1.00
M	3.71	3.31	2.82	3.18
SD	.54	.89	.84	.39

\*\* $p < .01$ , \*\*\* $p < .001$ .

주. 자기결정성은 5점, 행동억제는 7점, 양육불안은 6점, 자율성 지지는 4점 척도임.



## 2.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 및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모형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아의 행동억제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6번 모델을 이용하여 순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도 높아졌으며( $\beta = .21, p < .01$ ),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낮아졌다( $\beta = -.21, p < .01$ ).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아지면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20, p < .01$ ), 어머니 양육불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경로모형 분석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낮아졌으나( $\beta = -.30, p < .001$ ),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포함된 모형에서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54, p < .001$ ),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순차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도 높아졌으며( $\beta = .21, p < .01$ ),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낮아졌다( $\beta = -.23, p < .01$ ).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자율성 지지는 낮아졌으며( $\beta = -.38, p < .001$ ),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4, p < .001$ ).

종합하면,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높이지만 자율성지지 수준은 낮춰,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을 낮추는 순차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가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최종 모형에서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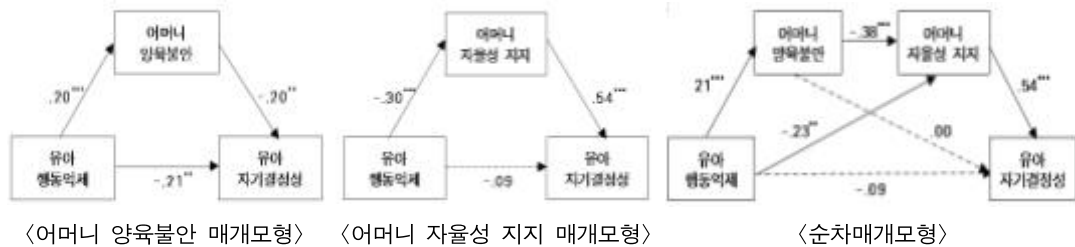
표 3.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지지 및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N = 225$ )

구분	변수	종속변수	$\beta$	SE	t	R <sup>2</sup>	F
어머니 양육불안 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X)	어머니 양육불안(M1)	.20	.06	3.17**	.04	10.04**
	유아 행동억제(X)	유아 자기결정성(Y)	-.21	.04	-3.31**	.10	12.91***
	어머니 양육불안(M1)		-.20	.04	-3.08**		
어머니 자율성 지지 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X)	어머니 자율성 지지(M2)	-.30	.02	-4.48***	.06	15.71***
	유아 행동억제(X)	유아 자기결정성(Y)	-.09	.03	-1.58	.33	55.06***
	어머니 자율성 지지(M2)		.54	.08	9.39***		

표 3. 계속

구분	변수	종속변수	$\beta$	SE	t	R <sup>2</sup>	F	
이중 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X)	어머니 양육불안(M1)	.21	.06	3.17**	.04	10.04***	
	유아 행동억제(X)	어머니 자율성 지지(M2)	-.23	.03	-3.77**	.23	33.07***	
	어머니 양육불안(M1)		-.38	.03	-6.26***			
	유아 행동억제(X)			-.09	.03	-1.58		
	어머니 양육불안(M1)	유아 자기결정성(Y)	.00	.04	.08	.33	36.54***	
	어머니 자율성 지지(M2)		.54	.08	8.67***			

\*\* $p < .01$ , \*\*\* $p < .001$ .



\*\* $p < .01$ , \*\*\* $p < .001$ .

- 주1. 모든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 주2.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가 각각 매개모형으로 포함된 단일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 검증한 결과,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차매개모형에서는 유아의 행동억제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통한 자율성 지지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간접효과 유의성 (N = 225)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어머니 양육불안 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 → 어머니 양육불안 → 유아 자기결정성	-.02	.01	-.06	-.00
어머니 자율성지지 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 → 어머니 자율성 지지 → 유아 자기결정성	-.10	.02	-.15	-.05
순차매개모형				
유아 행동억제 → 어머니 양육불안 → 유아 자기결정성	.00	.01	-.02	.02
유아 행동억제 → 어머니 자율성 지지 → 유아 자기결정성	-.07	.02	-.12	-.03
유아 행동억제 → 어머니 양육불안 → 어머니 자율성 지지 → 유아 자기결정성	-.02	.01	-.05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만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의 행동억제 특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의 순차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행동억제 특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 수준도 높아져 자녀에게 낮은 수준의 자율성 지지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낮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논의점과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적인 경향은 낮아졌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자녀의 행동억제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과도한 간섭을 하는 등 낮은 수준의 자율성 지지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억제 특성에 불안해하기보다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면,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가 행동억제 특성이 높은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의 양육행동을 제공할 경우 자녀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Whaley et al., 1999), 자기통제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김아영, 2008),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알게 되며(이지혜, 장영숙, 2016), 사회관계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는(우수경, 김기에, 2007)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재적 동기를 일으키는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과 유능성 및 관계성이 만족될 때 자기결정성이 발휘된다고 본 Deci와 Ryan(2002)의 이론에 기초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

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에게 요구되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법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녀가 두려움이나 경계심, 회피 반응 수준이 높은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잘못된 행동에도 이유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유아 스스로 유능성을 발휘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단독으로 매개변인 모형에 투입될 때 유아기 자녀의 행동억제 특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추가된 순차매개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정서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육행동을 통해 발휘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불안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가 행동적 특성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되고 민감성이 떨어져 자녀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손영미, 2016), 어머니의 양육불안 그 자체보다는 양육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양육 기술의 손상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양육불안을 완전매개하는 경로가 밝혀진 점은 양육불안이 유아기 자녀를 키운다는 특수한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이 타고난 불안 수준에 의해 증폭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양육행동을 통해 그 영향력이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지시적, 통제적 행동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이현아와 이강이(2021)의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이 밝혀진 바,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로 하여금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나 선택을 통제하는 등의 양육행동 외에 어떤 특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지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 단일매개모형과 순차매개모형 모두에서 직접효과가 사라졌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낮아지는 결과는 낮은 자극에 대해 경계심이 높고 회피적인 성향으로 행동억제적인 유아가 도전적이거나 목표지향적인 행동에 쉽게 관영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Barker et al., 2019; Kochanska & Aksan, 2006). 그러나 이러한 행동억제의 영향력을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완전매개하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행동억제 수준과 자신의 자율성 지지 수준을 자기결정성과 함께 측정했다는 점에서 응답의 편향성으로 인해 행동억제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한 맥락이 유아가 상대적으로 친숙하여 자신의 행동을 상대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없는 가정 맥락이라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행동억제 수준이 높아 발달 특성상 자기결정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기질의 유아일지라도 가정과 같이 낯설지 않은 맥락에서 어머니가 자율성을 지지해줄 때 스스로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

동역제 수준이 높은 유아 중 어머니가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양육을 경험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가정 외 맥락에서도 자기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를 전반으로 자기결정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만6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만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 중 생일이 지나 만6세가 된 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기 전반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아용 자기결정성 척도의 개발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유아 자신이 아닌 어머니의 평정을 통해 측정한 것으로, 실제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기결정성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아기 자기결정성 증진은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성인의 행동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가 개별 유아에 대한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경우,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도 자기결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장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억제적 기질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통해 자녀에게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행동억제적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낯선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주저하는 자녀를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어머니가 설정한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이러한 자녀의 기질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불안을 적절하게 다루며, 점진적으로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점차 스스로 직면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육자로 하여금 자녀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기초로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지지적인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상 속 다양한 경험 중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부모역할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https://www.moe.go.kr>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놀이치료연구*, 9(1), 23-37.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은주, 도승이 (2009).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유능감 및 관계성 욕구와 내재동기 및 수업 참여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3(1), 181-196.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https://doi.org/10.5723/KJCS.2011.32.4.83>
- 류숙렬 (2003).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경도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8(1), 161-182.
- 박경숙, 오인수 (2016). 자기결정성동기 및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흥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0(4), 295-305. <https://doi.org/10.24231/trici.2016.20.4.295>
- 박근주, 서소정 (2013).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89-511.
- 변수빈, 신나리 (2021).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놀이 중 또래상호작용.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105-124. <https://doi.org/10.14698/jkce.2021.17.01.105>
- 손영미 (201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이나, 손원숙 (2015).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중단적 상호효과. **교육심리연구**, 29(3), 591-610. <https://doi.org/10.17286/KJEP.2015.29.3.09>
- 오영진, 김영희 (2021). 부모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2), 27-57. <https://doi.org/10.22155/JFECE.28.2.27.57>
- 우수경, 김기에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자율성. **유아교육학논집**, 11(2), 331-348.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45-970. <https://doi.org/10.15842/kjcp>.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2. <https://doi.org/10.18023/kjece.2008.28.3.007>
- 이정란, 양옥승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이정옥, 이선남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측정도구 표준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38(1), 217-238.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1.009>
- 이지혜, 장영숙 (2016).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율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1-20.
- 이하람, 신나나 (2020). 유아의 행동억제와 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71-88.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6.071>
- 이현아, 이강이 (2021).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과제 지원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2), 185-198. <https://doi.org/10.5723/kjcs.2021.42.2.185>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주희진 (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237-259.
- 최현혁, 허진영 (2012). 체육수업 상황에서 행동활성화와 억제 척도의 재검증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5), 229-241.
- 허영호 (2007). 아토피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국진, 이은주 (2017).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중단적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2), 305-326. <https://doi.org/10.17286/KJEP.2017.31.2.05>
- Barker, T. V., Buzzell, G. A., & Fox, N. A. (2019). Approach, avoidance, and the detection of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hibition. *New Ideas in Psychology*, 53, 2-12. <https://doi.org/10.1016/j.newideapsych.2018.07.001>
- Becker, K. D., Ginsburg, G. S., Domingues, J., & Tein, J. Y. (2010). Maternal control behavior and locus of control: Examining mechanisms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anxiety disorders and anxiety symptomatology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4), 533-543. <https://doi.org/10.1007/s10802-010-9388-z>
- Bishop, G., Spence, S. H., & McDonald, C. (2003). Can parents and teachers provide a reliable and valid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Child Development*, 74(6), 1899-1917. <https://doi.org/10.1046/j.1467-8624.2003.00645.x>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https://doi.org/10.1007/s10964-005-8946-0>
- Carlton, M. P., & Winsler, A. (1998). Fostering intrinsic motivatio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5, 159-166. <https://doi.org/10.1023/A:1025601110383>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A.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237-288).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431-441).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2001). Extrinsic reward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education: Reconsidered once agai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1), 1-27. <https://doi.org/10.3102/00346543071001001>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 Psychology*, 56, 235-26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32>
- Ginsburg, G. S., & Schlossberg, M. C. (2002). Family-based treatment of childhood anxiety disorder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4(2), 143-154. <https://doi.org/10.1080/09540260220132662>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 <https://doi.org/10.1037/0022-0663.83.4.508>
- Hendrick, J. & Weissman, P. (2007). *Total learning: Developmental curriculum for the young child*.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Hofmann, S. G., & DiBartolo, P. M. (Eds.). (2014).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Elsevier.
- Kochanska, G., & Aksan, N. (2006). Children's conscience and self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87-161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21.x>
- Krebs, H., Weyers, P., & Janke, W. (1998). Validation of the German version of Cloninger's TPQ: Replication and correlations with stress coping, mood measures and drug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6), 805-814. [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008-7](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008-7)
- Penley, J. A., Tomaka, J., & Wiebe, J. S. (2002). The association of coping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5, 551-603. <https://doi.org/10.1023/a:1020641400589>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3), 467-483. <https://doi.org/10.2307/1131672>
- Schwartz, C. E., Wright, C. I., Shin, L. M., Kagan, J., & Rauch, S. L. (2003). Inhibited and uninhibited infants "grown up": Adult amygdalar response to novelty. *Science*, 300(5627), 1952-1953. <https://doi.org/10.1126/science.1083703>
- Shamir-Essakow, G., Ungerer, J. A., & Rapee, R. M. (2005). Attachm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2), 131-143. <https://doi.org/10.1007/s-10802-005-1822-2>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et al.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https://doi.org/10.1037/0012-1649.43.3.633>
- Whaley, S. E., Pinto, A., & Sigman, M. (1999). Characterizing interactions between anxious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6), 826-836. <https://doi.org/10.1037/0022-006X.67.6.826>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https://doi.org/10.1037/0022-3514.70.4.767>

Wolman, J., Campeau, P., Dubois, P., Mithaug, D., & Stolarski, V.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논문투고: 23.06.22.

수정원고접수: 23.11.21.

최종게재결정: 23.11.23.